

대구대, 2021학년도 정시모집 525명 선발

대구대학교(총장 김상호)가 2021학년도 정시모집을 통해 총 525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모집인원은 가군 168명, 나군 251명, 다군 106명이다. 모집 기간은 2021년 1월 7일부터 11일(오후 6시)까지다. 대구대학교 홈페이지(www.daegu.ac.kr)와 진학어플라이(www.jinhakapply.com) 등 인터넷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비율 및 가산점은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가/나), 영어, 탐구(사/과/직) 4개 영역을 각각 25%씩 반영하고, 한국어 등급에 따라 가산점을 준다.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은 4개 영역을 25%씩 반영하고, 수학 가형에 15%, 과학탐구에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예체능 계열은 국어 40%, 수학(가/나)과 영어 중 하나를 택해 30%, 탐구(사/과/직) 30%를 반영한다.

대구대는 2021학년도에 4개 학과(전공)를 신설한다. 신설학과는 ▲ 융합산업공학과 ▲ 한국어문학부 한국어통번역학전공 ▲ 컴퓨터정보공학부 정보보호전공 ▲ 신소재에너지시스템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이다. 융합산업공학과는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서의 융합적인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한국어통번역학전공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수준 높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사회 관련 교육을 해 언어권별 특성에 맞는 한국어 통·번역 전문인력을 기른다.

또 정보보호전공은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정보



누출, 도청, 정보 변조 등의 침해 행위에 대비하는 최정예 사이버 정보 보호 전문인력을,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은 태양에너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에너지하베스팅 등 지속가능한 차세대 에너지 기술 연구 개발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각각 양성한다.

대구대는 적극적인 정부지원사업 유치를 통해 대학 발전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대학 자율역량 강화 지원사업(ACE+사업, 2017~2020년, 약 70억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사업, 2017~2021년, 약 206억원), 대학혁신지원사업(2019~2021년, 약 170억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2016~2020년, 약 42억원) 등이 있다. 이렇게 국고 사업을 통해 확보된 지원금은 학생 교육과 연구에 재투자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



대구대학교 가을 전경

정성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명품교육의 명가, 대구대학교!
2021학년도 신설학과를 소개합니다.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태양에너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에너지하베스팅 등 지속가능한 차세대 에너지 기술 연구 개발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융합산업공학과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모빌리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에서의 융합적인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정보보호전공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정보 누출, 도청, 정보 변조 등의 침해 행위를 대비하는 최정예 사이버 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

한국어통번역학전공

외국인 유학생에게 수준 높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사회 관련 교육을 실시해 언어권별 특성에 맞는 한국어 통번역 전문 인력 양성